

‘공부하다 죽어라’ 백척간두로 몰아붙이는 법문



대연 거사는 원당암 초입인 무생교(無生橋) 아래서 승용차를 멈추었다. 원당암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걸어서 올라가고 싶었다. 무생교 밑으로 흐르는 개울물은 그날 노스님을 보았을 때처럼 여전히 맑고 투명했다. 개울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한데 어우러져 흘렀다. 쉬 없이 흐르는 물은 무생교라는 이름처럼 나고 죽는 것을 초월해 있었다. 온몸으로 무심코 드러나 있을 뿐이었다. 대연 거사는 다리 난간에 걸터앉아 노스님을 떠올렸다.

“출가하지 않더라도 장좌불와만 할 수 있다면 해암 스님처럼 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대연 거사는 바둑알을 복기하듯 노스님의 말을 헤아렸다. 장좌불와는 도인이 되는 조건이라는 말이었고, 장좌불와를 평생 동안 한 해암 스님은 도인이라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장좌불와를 방편 삼아 자신과의 약속을 평생 지킨 사람이 해암 스님이라는 말이었고, 도인이라 자신과의 약속을 평생 지킨 사람이라는 뜻과 다를 바 없었다.

대연 거사는 돌맹이 한 개를 들어 던지듯 난간에 서 일어섰다. 돌맹이는 계곡으로 은밀하게 사라졌다. 자신도 평생 장좌불와할 것이라고 장담하려면 저 무심한 돌맹이와도 약속해야 했다. 이제 고작 5년이 지났을 뿐이었다. 계곡물에 떨어진 이후의 햇살이 그를 울려다보며 웃었다.

그래도 대연 거사는 장좌불와를 해오는 동안 자신의 마음이 웅덩이처럼 고요하고 법당의 촛대처럼 밝아지곤 했다고 여겼다. 노스님이 일러준 대로 그날 미소굴로 올라가 해암 스님 진영 앞에서 약속한 바를 지키며 살고 있다는 그런 충만감이 들기도 했다.

입춘이 지난 까닭에 원당암 가는 산길 거의 풀썩 들은 벌레 파랗게 물이 오르고 있었다. 자주색으로 얼었던 이파리에 푸른 빛깔이 들었다. 마른 이끼처럼 메달라 있던 소나무 잎들도 윤기가 도드라졌다. 원당암 허공을 나는 산새들의 날갯짓도 활기찼다. 한 스님이 뒷짐을 지고 지나가다가 대연 거사에게 화두와 같은 말을 던졌다.

“있들이 파래지면 꽃보다 고외질 겁니다.”

스님은 대연 거사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원당(願堂) 너머에 자리한 연화실로 가버렸다. 비가 오려는 듯 갑자기 하늘이 낮아졌다. 대연 거사는 보광전으로 들어가 삼배를 하고 나와 원편 계단을 이용해 미소굴로 올라갔다.

미소굴에 이르자, 수직으로 꽂혀 있는 거대한 주춧돌 하나가 보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주춧돌이 터였다. 거기에는 ‘공부하다 죽어라’고 쓰여 있었다. 해암 스님의 사자후였다. 주춧돌 옆에는 조그만 계사판에 다음과 같은 법문도 새겨져 있었다.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흙은 마음으로 흙은 일 하다 죽으면 안 죽어요.’

대연 거사는 숨이 턱 막혔다. 언제 보아도 자신을 순식간에 절벽 끝으로 밀어붙이는 법문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모골이 송연했다. 날마다 순간순간 혼신의 힘을 다 쏟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스님의 사자후였다. 대연 거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 아닐 것인가?”

대연 거사는 해암 스님이 머물렀던 흙벽돌로 지어진 미소굴 방문 앞으로 갔다. 그때는 건성으로 보았으나 비로소 방문 앞의 계사판 글이 마음으로 읽혔다. 계사판 글이라기보다는 스님이 환생하여 법문하는 것 같았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귀가 먹먹했다. 어느 신문 기자가 묻는 말에 스님의 답변은 정곡을 찔렀다.

“불법의 요체란 마음도 없는 무심(無心)이고, 수행의 첫째 방법은 밥을 적게 먹는 것이고, 최상의 포교란 신도들과 함께 좌선하는 것이고, 청량법음이란 인과를 법문하는 것이고, 선(禪)은 인류의 변화와 개혁에 열쇠가 될 것이며 무정중생까지도 불성이 있다는 개유불성(皆有佛性)의 진리는 인류의 비극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처방전이 되리라는 것이 스님의 말씀이었다.”

대연 거사는 신발을 벗고 미소굴 안으로 들어갔다. 스님의 진영 사진이 미소굴 안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눈빛이 형형한 스님은 모자랑 북처럼 생긴 하얀 불자(佛子)를 당당하게 세워두었고, 지그시 다문 입술은 천금 같은 침묵을 머금고 있었다.

삼배를 하고 나자, 스님의 살림살이가 또렷하게 드러났다. 유물로서 주춧돌 하나가 세워져 있고,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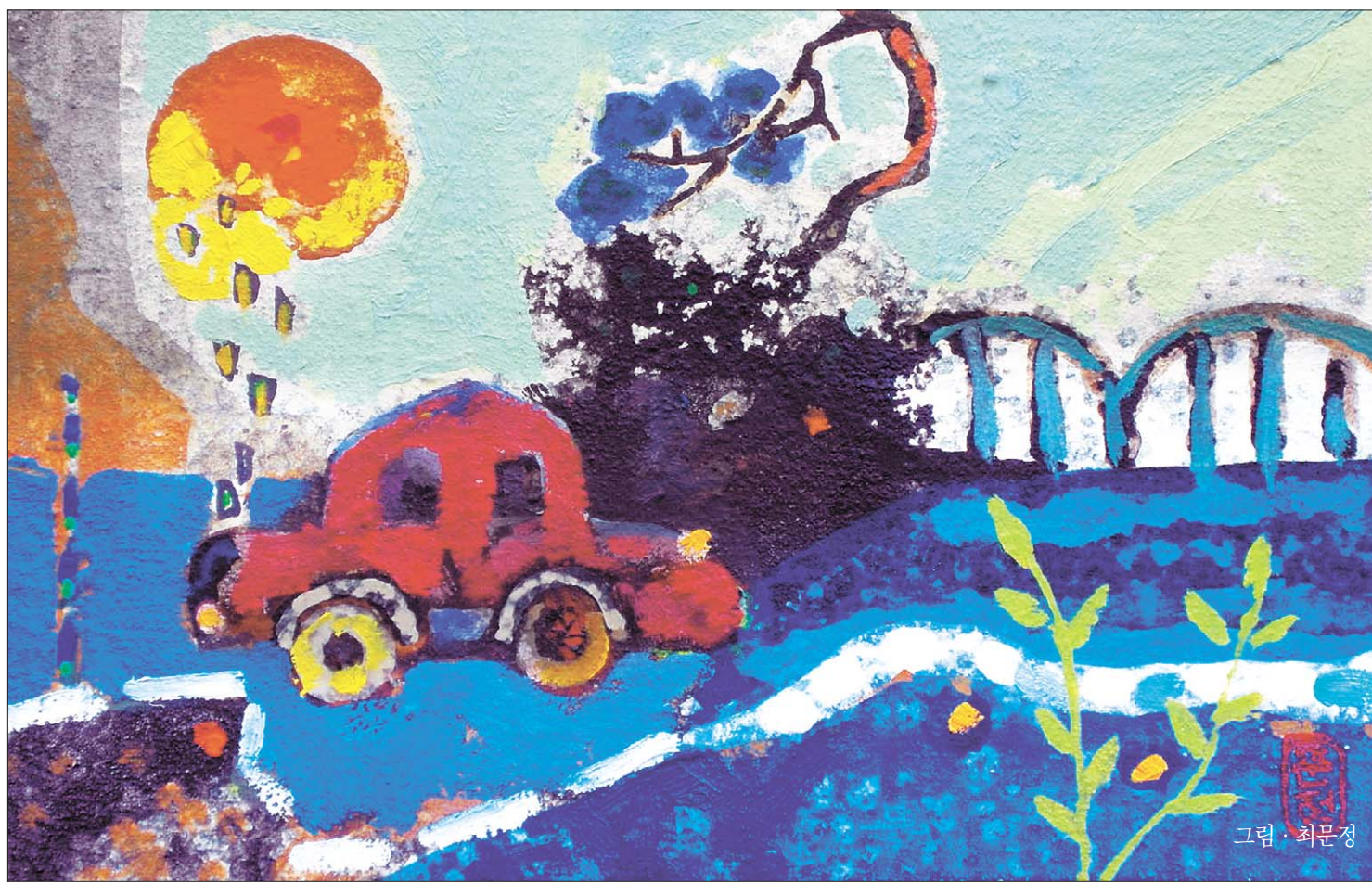


그림 최문정

(壇)에는 안경, 회중시계, 돌보기가 군더더기를 옮기지 않는 스님의 성정답게 하나씩 놓여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경상(經床)에는 스님께서 늘 지나시고 다녔던 <금강경> 한 권이 보였다.

스님의 입적 2주기 때, 그러니까 5년 전에도 보았던 유물들인데 왜 이제야 시선을 강렬하게 끄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대연 거사는 경상의 <금강경>을 보고는 혼잣말로 소리쳤다.

“저 <금강경>이 출가 전 일본에서 서용 스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바로 그 책일지도 모른다. 서용 스님께서 출가 전의 해암 스님에게 ‘범소유상 깨시허망

들고 참선하고, 1주일 철야옹맹정진 때는 250여 명이 입실한다며 정진하는 연명중도 삼심대의 거사와 보살부터 머리카락이 하얀 팔십대까지 다양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여 얘기했다.

“방부 들어려면 종무소로 가보시오. 종무소는 보광전 옆 요사채입니데. 단비가 오네에, 어서 가보이소.”

대연 거사는 달마선원에 입실하려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종무소로 갔다. 자신이 원당암에 온 용건을 해결하려면 종무소로 가서 알아봐야 했다. 대연 거사는 사무장이 가리키는 원주스님 방으로 들어갔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어입니다.”

“스님께서 해암 스님의 입적을 보았는지요?”

“물론이지요.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공양 때가 지나서 평상시처럼 미소굴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시자(侍子)로 있었는데 스님께서 쉬시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기척이 없어요. 그래

서 됐던 분입니다. 단아한 키에 목소리가 우렁우렁 컸던 노스님입니다.”

그러나 현오 스님은 금시초문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원당암에 계셨던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원스님께 여쭙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원스님이라면 원당암 주지이자 해인사 선방 유나인 원각(源覺) 스님을 말했다. 해인사처럼 큰절에 서는 선내암자의 주지를 감원스님이라고 불렀다.

“원당암에 계셨던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원스님께 여쭙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원스님이라면 원당암 주지이자 해인사 선방 유나인 원각(源覺) 스님을 말했다. 해인사처럼 큰절에 서는 선내암자의 주지를 감원스님이라고 불렀다.

“원당암에 계셨던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원스님께 여쭙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원스님이라면 원당암 주지이자 해인사 선방 유나인 원각(源覺) 스님을 말했다. 해인사처럼 큰절에 서는 선내암자의 주지를 감원스님이라고 불렀다.

“원당암에 계셨던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원스님께 여쭙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원스님이라면 원당암 주지이자 해인사 선방 유나인 원각(源覺) 스님을 말했다. 해인사처럼 큰절에 서는 선내암자의 주지를 감원스님이라고 불렀다.

“원당암에 계셨던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원스님께 여쭙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원스님이라면 원당암 주지이자 해인사 선방 유나인 원각(源覺) 스님을 말했다. 해인사처럼 큰절에 서는 선내암자의 주지를 감원스님이라고 불렀다.

“원당암에 계셨던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원스님께 여쭙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원스님이라면 원당암 주지이자 해인사 선방 유나인 원각(源覺) 스님을 말했다. 해인사처럼 큰절에 서는 선내암자의 주지를 감원스님이라고 불렀다.

“원당암에 계셨던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원스님께 여쭙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를 두어 잔 마시고 나서야 현오 스님이 대연 거사에게 용건을 물었다.

“거사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노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법명이 어떻게 됩니까?”

“모름니다. 해암 스님 2주기 때 저 아래 무생교에

“원당암 초입

무생교 아래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맑고 투명한

개울물 흘러

과거 현재 미래가

한데 어우러져

무심코 흘러

‘장좌불와’ 방편으로 입적 때까지 수행 자신과의 약속 평생 지킨 도인 해암 스님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의 뜻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뜻은 알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진리는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주었다는 그 <금강경> 말이다.”

물론 그 <금강경>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연 거사는 그렇게 짐작했다. 미소굴을 나서자마자 그의 흥분한 마음을 식혀주려는 듯 비가 한두 방울 떨어졌다. 미소굴의 기와를 적실 뿐 주머니 끝에서 낙숫물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다. 입춘이 지나오니 봄비라고 해야 옳았다. 우산 없이 비를 맞아야 차갑지 않았다.

달마선원은 운봉교(雲峰橋) 너머에 있었고, 운봉교는 원당암의 전방대 같았다. 가깝게는 원당암 가람들이, 멀리는 화엄처럼 솟구친 가야산 봉우리들과 해인사 전경이 한눈에 들었다. 원편 허공의 가야산 정상은 이미 비구름에 가려있고, 해인사 당우들은 봄비를 기다렸다는 듯이 촉촉하게 젖어가고 있었다. 대연 거사는 달마선원으로 가려다 한 보살의 제지를 받고는 멈추었다.

“거사님, 거기는 못 들어갑니데. 재가신도님들 선방이래요.”

“산철에도 정진합니까?”

“그렇습니다. 달마선원은 해암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일년 내내 재가 신도님들이 참선하는 선방 아닙니까.”

“그렇군요.”

“거사님은 무슨 일로 왔습니까. 선방 방부 들어려고 합니까?”

“그냥 와 봤습니다.”

보살은 묻지도 않았는데 달마선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얘기했다. 재가신도들도 하얀겨 동안겨 결제를 하는데, 산철에도 60일씩 결제를 이어가는 것이 달

사무장은 원주스님이 출타했다고 알려주면서 스님의 손님으로 보았는지 종무소에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바로 원주스님의 방으로 안내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는 등 마는 동했다. 만년위패가 봉안된 원당의 기와장을 적시며 금생과 내생을 넘나들듯 한두 방울씩 ‘원왕생 원왕생’ 하고 내렸다.

잠시 후 대연 거사는 벽에 시선을 멈추었다. 날카로운 보검으로 양각을 뜯 듯한 해암 스님의 생사해탈(生死解脫)이라는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다. 스님이 즐겨 썼던 선어(禪語)가 분명했다. 훗날 스님은 생사해탈을 소재 삼아 깨달은 경계를 계승으로 읊조리곤 했던 것이다.

깨달음이 환하니 열반과 생사가 둘이 아니므로 보이는 만물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들리는 소리는 모두 보살이로다 보고 듣는 이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아! 세상 사람들은 알겠는가.

출타했다는 원주스님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다. 순박한 모습의 스님은 선한 인상을 주었고, 말투에는 충정도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차를 즐기는 차인(茶人)은 아닙니다만 차를 대접하는 것이 무난하더라고요.”

“해암 스님의 상좌 부탁드립니다.”

“맛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지요. 현오라고 합니까?”

“생사해탈이라는 해암 스님 글씨가 벽에 있어서 상좌 분이 아닌가 하고 짐작했습니다.”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돌 아닌 돌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나가 죽고 죽고 오는 것이 티끌 세상에 공이어서 원수나 천한 이나 한길로 황천으로 가네. 황천으로 가는 길은 어느곳으로 통하기에 해가 가고 해가 와도 가신 분 돌아오지 않네.

— 해암대종사 법어

- 정진안내**
- 철야 옹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7일 철야 옹맹정진 여름 : 음력 7월 1일 ~ 8일
겨울 : 음력 12월 1일 ~ 8일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함천군 가야면 치린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